



태권도 시범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비판 :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을 중심으로

권혁정¹ · 빙원철^{2*}

1. 동아대학교, 박사 2. 백석대학교, 교수

요 약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시범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비판으로서 존재적 토대를 마련해 태권도 시범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방법 태권도 시범은 관전자가 보는 주관적 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은 태권도라는 보편적인 의미 전달이 가능한가이다. 이를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결과 태권도 시범이 '멋있다, 아름답다'는 미적 판단에 대한 본질적 의미는 상호주관적이며 나아가 어떠한 개념을 창조해 낼 수 있다. 이는 반성적 판단력의 특성인 무관심성과 공통감으로 가능하다. 태권도 시범에 대한 무관심성은 관전자 개인의 주관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의미로 부여된다. 태권도 시범에서 공통감은 관전자들이 지닌 보편성과 타당성의 공감으로 이를 보는 모든 이에게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합리적인 토대를 구축한다. 무관심성과 공통감은 시범에 대한 전달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판단력으로서 작용한다. 반성적 판단력의 특성은 관전자에게 창출되는 보편적 개념에 대한 비판적 근거이다. 이를 개념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창조이며 시범자와 관전자의 보편적인 메시지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고 자유로운 상상력의 유희로서 관전자들에게 전달시켜 주는 개념적 작용이다.

결론 따라서 태권도 시범에서 본질적 의미에 대한 비판은 커뮤니케이션 창조라는 개념으로서 창출되는 과정을 논증하는 것이며 이의 존재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제어 무관심성, 공통감, 표현의 자유,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 창조

I. 서 론

관전자가 태권도 시범을 관전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다. 관전자의 지각에 따라 '시범이 어떻다'는 의미가 모두 다르다. 왜냐하면 시범의 구성 내용에 따라 관전자마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시범은 태권도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전자가 받아들이는 지각에서 태권도 시범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기술의 발전성 나아가 예술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태권도 시범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이 구별될 수 있고, 이를

보는 관전자 각각의 주체에 따라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태권도 시범은 행위자가 태권도를 표현하고 관전자에게 태권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다. 시범은 태권도의 시각화된 현상을 잘 반영한 것으로 이미 태권도 분야에서 주목하는 분야가 되었다. 태권도 시범에서 고난도 기술의 퍼포먼스는 관전자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만큼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으며, 각종 대회를 통해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태권도 시범은 수련의 장으로서의 태권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각중심주의¹⁾의 예술적 가

1) 시각중심주의 또는 시각주의는 시각이 어떤 현상을 파악할 때 다른 감각에 의한 것보다 이성이나 지적인 측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탁월한 감각을 지닌다는 입장을 말한다(Yeon, 2015).

* bing7@hanmail.net

치로서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태권도 시범이 보편적인 시각중심의 공연, 경연 등으로 행사가 치르지는 것을 보면 문화적 토대를 구축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 태권도 시범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시범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단지 태권도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인식시키려는 차원과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태권도 시범은 기술적으로 너무 획일적이고 변형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시범이 본질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토대를 둔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는 태권도 시범의 시각중심주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화려한 기술적 외형만을 강조하고 형식화시켜가는 현실 비판²⁾적인 입장에서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다. 즉 태권도 시범의 시각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상으로서 보여지는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이 부여될 때 시범이 갖는 본질적 정체성의 의미를 제대로 지니게 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른 예술적 분야에서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 공연에 대한 제목을 부여하고 스토리를 형성해 나간다. 그럼으로써 관객들은 공연을 통해서 정서적 반응과 공감 나아가 감동³⁾을 느끼게 된다. 태권도 시범도 시범 내용에 맞는 스토리로 전개되고 공연되어야 진정 예술적 경지로서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호응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태권도 기술의 정수를 펼친다고 해서 예술의 경지가 아닌 것이다. 태권도 시범을 보고서 감흥(쾌)이 일어나야 한다. 즉 태권도 기술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 전달되어야 시범을 통한 관객자의 감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며, 시범의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시범에 대한 주제를 부여하고 그 과정을 표현했을 때 관객자로 하여금 태권도 시범의 본질적 개념이 정립되는 것이며, 현대의 태권도 시범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태권도 시범은 관객자에게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주어진 현상에 대한 내면적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태권도 시범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하나의 학문적 배경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이해는 태권도 시범에 대한 시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해의 틀이 되는 것이다.

태권도 시범은 멋, 즉 아름다움의 감정을 유발시키므로 예술과 관련된 문제로 귀속시킨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은 예술뿐이기 때문이다(Yang, 2010). 시범은 미적인 감각으로 인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의식의 작용으로 관객자의 입장에서 부여하는 의미로서 멋과 아름다움은 기술의 터득과 숙달의 경지를 넘어서서 예(藝)의 경지로 들어섰다는 의미이다(Kwon, 2014). 그러므로 예술적 차원으로서 시범은 행위의 아름다움과 멋에 대한 감정을 보편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에 태권도 시범은 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미적 판단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이를 인식하는 관객자의 주관적 판단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개념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 연구와의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태권도 시범과 미학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Im, 2019; Jang & An, 2017; Im & Kim, 2011). 이들의 연구는 학적 배경을 미학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으며 태권도 시범의 미학으로서 외재적인 가치, 공중기술에 대한 탐색, 미학으로서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다음은 태권도 시범의 본질적 접근에 관한 연구이다(Kim, 2009; Kwon & Bing, 2020b; Kwon & Bing, 2020c). 이들의 연구는 태권도 시범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지만 그 학적 토대를 현상학에 근거하였으며 태권도 시범에서 활동 경험, 감정으로서 기분의 의미 나아가 기분의 본질적 구조만을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범의 존재로서 토대가 무엇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어느 선행연구에서도 태권도 시범과 관련한 개념의 설정, 즉 시범내용의 전달과 관련한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명은 물론 선행연구의 미흡함은 이 연구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공해 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시범의 본질적 의미로서 존재적 토대를 마련해 태권도 시범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구성이론으로서 반성적 판단력을 근거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칸트

2) 비판에 대한 정의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철학에서는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을 말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철학적 의미로서 칸트의 비판적 의미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인식능력으로서 존재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3) 쾌와 불쾌의 감정. 칸트는 실용적인 관점으로 본 인간학에서 쾌와 불쾌의 감정을 지성적 쾌와 감성적 쾌로 크게 구분한다. 전자는 현시할 수 있는 개념들과 이념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감관에 의한 것으로 쾌락과 상상력에 의한 것인 취미로 구분된다고 하였다(Kim, 2006).

가 주요 핵심으로 두고 있는 ‘인간이 갖는 주관적 느낌은 보편적으로 전달가능하다’라는 문장을 염두에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II. 시범에 대한 지각 활동과 반성적 판단

태권도 시범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근거는 태권도 시범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것이다. 즉 관전자가 시범을 직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중요한 것은 직관을 통해 관전자가 받을 수 있는 감성적⁴⁾, 즉 심미적 체험을 어떻게 관계지을 것인가? 인데 이를 포섭⁵⁾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이를 포섭할 수 있는 근거는 반성적 판단력에 의해서이다. 왜냐하면 칸트는 이념과 현상간의 세계에 대하여 지각의 내적 조건에 대하여 반성(비판)을 통해 극복을 시도했기 때문이다(Kim, 2006). 이는 관전자가 갖는 미적 체험의 주관적 판단이 보편적으로 다른 관전자에게도 전달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토대로서 작용할 것이다.

1. 시범과 관전자의 지각활동

태권도 시범은 시범자들의 향연, 즉 기술적 퍼포먼스에 의해서 아름다움과 멋으로서 예술적인 느낌을 발견할 수 있다. 아름다움에 관한 학적 배경은 미학이다. 미학에 대한 근거는 A.G바움가르텐에 의해서 찾아야하지만 아름다움과 멋이 지니고 있는 미로서의 인식과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칸트의 미학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

다.⁶⁾ ‘Ästhetik’을 때로는 초월적 의미로 때로는 심리적인 의미로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한 첨언은 미학을 위한 용어로 사용(Kim, 2005)했기 때문이다.

칸트의 미학에서 아름다움은 통념을 깨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영감을 끊임없이 불러 일으켜 끄집어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작업이다. 즉 미학이라는 원어에 담긴 본래적 뜻에서 지각함으로서 비롯된 지각적인 것의 문제제기란 분명히 어떠한 방법적인 성격을 지닌다(Kim, 2006). 그러므로 지각은 시범이라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보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지각은 대상을 살아 있는 것에 대한 생생한 방식으로 현재화한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적인 양태로서 지각이 대응하게 된다(이신철 역, 2011). 왜냐하면 관전자가 보는 대상에서 체험의 감각이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현상으로서 지각은 무엇을 감지하고,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리킨다. 나아가 지각이 갖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는 활동은 모든 ‘이성적 주장의 궁극적인 정당성의 원천’으로서 철학의 근거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이신철 역, 2011).

그러므로 지각 활동은 시범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적 본질에 대한 근원을 끄집어내어 시범의 미적 쾌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대상의 아름다움이란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라는 쾌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때의 쾌의 감정이란 대상의 형식을 파악함으로서 느끼는 감정이다(Song, 1999). 시범의 아름다움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아름다움의 내재적 의미, 즉 지각활동에 의한 것이다.

시범은 관전자에게 전제된 현상에 대한 본질적 탐구이므로 현상은 본질을 들여다보게 하는 의미로서 중요하다. 즉 태권도 시범이라는 현상을 지각하므로 내재한 느낌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시범에 대한 지각은 시범에 대한 현상을 인식하게 해서 그 본질적 토대로서 개념 작용의 능력을 밝혀내고자 하는 학적 토대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설정하게 한다. 이는 칸트의 주요 텍스트인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4) 감성적이라는 말은 ästhetisch를 번역한 것으로 ‘심미적’이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감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로 사용된다. 우리말 용법으로서 ‘자극을 수용하는 능력’과 ‘자극이 정서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는 능력’의 뜻을 지닌다. 이를 칸트의 철학적 개념으로 보면, 전자는 대상의 인식에서 질료를 획득하는 능력으로서 객관적이다. 후자는 자극을 계기로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이나 감정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으로서 주관적이다(Kim, 2005). 시범은 관전자의 입장에서 감각하는 것은 객관적이지만 비판에 의한 지각은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성적의 의미는 관전자 각각에 주체를 둔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5) 칸트에게서 고유한 포섭은 판단의 객관적 타당성을 묻는 ‘적용’의 문제를 나타낸다. 포섭이 단적으로 말해지는 것은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능력’인 판단력에서이다(이신철 역, 2009).

6)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병남(2010)의 저서 『미학강의』 중 8장을 참조.

2. 칸트의 『판단력 비판』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핵심은 어떤 대상을 미적 판단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는 여지는 주관적이면서도 보편성을 띤다(Cassirer, 1938)는 것에 있다. 즉 『판단력 비판』은 인간이 지니는 판단능력에 대해서 감성적 판단능력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다.

판단력은 외적 사물 또는 대상과 자기 자신이 서로 관계 맺고 있는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설정된 개념으로서 어떠한 의사소통적인 기능임을 암시해준다(Kim, 2003). 즉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속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다(Kant, 1974).

『판단력 비판』은 감성적 판단력의 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이라는 두 항목, 즉 미학과 목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핵심적인 개념은 역시 반성적 판단력과 그 원리인 합목적성 개념에 있다(Kim, 2005).

칸트가 합목적성의 원리를 반성적 판단력에 위치시키고 이를 쾌감과 결합시켰다(Kim, 2006). 예를 들어 새의 깃털은 날아다니는 것과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합목적적이라 판단되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칸트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합목적성 개념을 인과성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명확한 목적적 표상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이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끄집어내어야 한다. 이를 위한 보편적 판단력 원리가 되는 것이 반성적 판단력인 것이다.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취미 판단이며 이를 통해 반성적 판단력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자 하였다.⁷⁾

칸트에 의하면 취미 판단의 성질이란 바로 미(美)가 어떤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취미는 어떠한 대상과 혹은 표상방식을 전부의 관심을 떠나서 만족 또는 불만족에 의해 판정하는 능력이다(Chu, 2018). 보편타당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판단의 필연성을 동시에 주장하는 반성능력이다(Yang, 2010).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주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 판단은 하나의 보편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에 대한 모든 사람의 감정을 채워가는 근거를 상정한다(Chu, 2018). 따라서 ‘어떤 대상이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보편적 판단이 취미판단이다(Kant, 1974).

취미 판단은 인간이 갖는 원초적인 인식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으로 감성적 능력은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관계시켜 준다. 이는 어떠한 원리나 개념에 의한 규정적 판단이 아니라 특수한 대상에서 마주한 대상의 사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쾌와 불쾌를 판단하는 반성적인 판단이다(Nam, 2012). 취미 판단은 어떤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미적인 것이다. 심미적인 것이란 그것의 규정 근거가 오히려 주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Kant, 1974).

취미 판단의 주체는 대상에 대해 마치 그러한 성질을 지니는 판단을 내리지만 그 대상성으로 인해 주관과 객관의 연결을 보이며 여기서 보편적인 것을 요청하게 된다(Kim, 2003). 따라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특수로부터 보편을 구해내기 위한 특수한 업적은 반성적 판단력으로 비롯됨이다.

3. 반성적 판단력

판단력의 원리로서 좁은 의미의 인식 능력과 욕구 능력 사이에는 쾌와 불쾌의 감정이 존재하고 있다. 칸트는 이러한 감정의 활동을 반성적 판단력 안에서 발견했다. 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각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의사교환, 즉 보편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Nam, 2012). 그러므로 반성적 판단력은 대상에서 개념을 찾아내기 위해 주어져 있는 표상을 반성하는 능력이거나 주어진 표상에 의하여 개념을 규정하는 능력이다(Kim, 2003). 따라서 반성적 판단력은 특수하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개념을 도출해 내기 위해 중점을 두는 것에서 이를 토대로 보편적인 것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능력이다.

이에 대한 보편적 작동 과정은 칸트가 제기한 미적 쾌로서 어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쾌이며 보편적으로 소통 가능한 감성적인 상태에 근거한다. 이것은 상상력과 이성⁸⁾

7)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미감적 판단력 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을 다루고 있는데 미감적 판단(취미 판단)이 개념을 전제하지 않은 순수한 흡족함에 근거한 판단이지만 목적론적 판단은 목적론적 자연관을 개념을 통해 드러내므로(You, 2019) 칸트의 판단 분류상 반성적 판단의 기본구조와 특징을 밝히는 데에 취미 판단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Hwang, 2020).

8) 개념에 의한 인식 능력이며 개념에 의한 인식 능력은 판단하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즉 개념들을 판단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Kim, 2003).

의 인식 능력이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에서 나온다(Nam, 2012). 그러므로 인식의 판단은 객체의 표상을 이성으로서 객체에 관계시키고 미적 판단은 객체의 표상을 주관과 주관의 쾌와 불쾌의 감정에 관계시킨다(Kant, 1974). 이와 같은 관계는 단지 객체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근거로서 관계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다. 따라서 반성적 판단력은 이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지니는 감성적 판단이 객관적인 인식 능력의 한계와 미적 판단의 지각적 감성이 이성과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러한 판단력을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으로 구분하여 나눈다. 규정적 판단력은 보편적인 것이 주어지고 그것에 포괄되는 특수적인 것을 발견하는 능력을 말한다. 도덕의 원칙에서 올바른 행위를 유출하는 것은 규정적 판단력의 기능이다(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따라서 규정적 판단력은 보편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특수한 사실로 나아가는데 이는 개념, 원리, 모델, 표 등 먼저 주어지는 보편자를 통해서 사실이나 개체와 같은 특수자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반성적 판단력은 규정적 판단력과 다르게 자연의 합목적성에 대한 판단, 보편이 먼저 주어지지 않고 차라리 주어진 특수 안에서 보편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Nam, 2012). 개념이나 법칙이 없는 상태에서 개념이나 법칙을 만들어서 포섭시켜서 만드는 판단이다. 반성적 판단력은 보편을 찾아야 하는 경우의 판단이다(Kim, 2006).

이때에 선험적 원리를 기초로 주어진 보편이 합목적성이라는 것이다(Song, 1999). 특히 합목적성의 원리는 대상을 반성함에 있어서 주관이 느끼는 감정, 즉 쾌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Kim, 2005). 대상의 현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로지 대상의 성질로만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결부시킨다(Chu, 201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통상 감정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통념에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Kim, 2005).

그러므로 새로운 관점은 보편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보편을 찾아가는 능력이므로 이성의 준칙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미규정성의 원리 하에 있는 셈이다. 이런 원리 하에 있다는 것은 지성⁹⁾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그래서 ‘지성이 모르는 길’¹⁰⁾이다(Kim, 2005). 따라서 길에

대한 의미는 개념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규정적 판단력이 아닌 반성적 판단력과 연관하며 태권도 시범에서도 이를 요구한다.

따라서 반성적 판단력은 아름다움의 통념을 깨는 것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의 위치에서 사고하는 것’(Kant, 1974)으로 새로운 원리적 개념, 즉 본질적인 의미를 보편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의 특성을 따른다.

Ⅲ. 태권도 시범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비판

태권도 시범을 보고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단지 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적인 안목에서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는 태권도 시범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아름다움의 통념을 깨는 새로운 특성을 필요로 한다. 칸트가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판단을 분석해서 구해내는 개념의 구성능력으로서 반성적 판단력의 특성이다. 이것이 무관심성과 공통감이며 관전자의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에서이다. 이로 인해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발견해 내는 것이다. 이는 관전자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판단될 것이 아니라 시범을 보는 다른 관전자들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념, 즉 보편적인 메시지로 내재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이 연구를 도식화하여 요약하면 <Figure 1>과 같다.

시범(deonstration)을 보는 관전자(spectator)는 지각활동(perception activities)을 통해서 시범에 대한 주관적 판단(Subjective judgment)을 내린다.

시범이 미적 판단으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보편적 판단(Universal judgment)이 되기 위해서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의한 반성적 판단(Reflective judgment)의 근거가 필요하다. 칸트가 제시한 반성적 판단의 특성인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과 공통감(Common sense)은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는 메시지로 자유로운 상상력의 유희(play of imagination)

9) ‘지성’은 개념의 능력으로서의 지성, 포섭의 능력으로서의 판단력, 추론의 능력으로서의 이성을 포괄한다(이신철 역, 2009).

10) 지성이 모르는 길은 이성이라는 것이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

(1781)에서 지성은 현상을 통일하는 능력이고 이성은 지성규칙을 원리적으로 통일하는 능력이라고 자리매김했다(오석철, 이신철 역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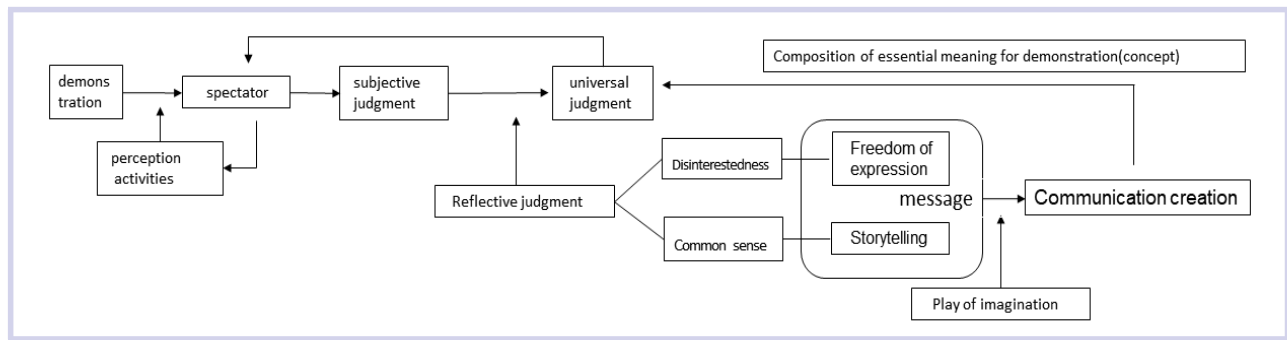


Figure 1. A process of constructing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Taekwondo demonstration

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창조(communication creation)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composition of essential meaning for demonstration: concept)된 커뮤니케이션의 창조는 시범에 대한 보편적 판단(universal judgment)의 존재적 토대로서 가치가 된다는 것이 이 연구의 논거이다. 상세한 내용은 이후에 논의할 것이다.

1. 반성적 판단력의 특성은 태권도 시범과 어떤 점에서 관계하는가?

반성적 판단력의 개념 중 보편성에 대한 요구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 칸트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무관심성이다. 무관심성은 감각적 쾌나 도덕적 선에 기초를 두지 않은 미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한다(Yeon, 2015).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어떤 관심이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념을 배제하는 것이다(Park, 2005). 따라서 감성적 판단의 보편성에 대한 요구는 적어도 판단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조건이나 관심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야만 가능하다(Kim, 2005).

반면에 관심이란 실재의 욕망이나 욕구 또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Kim, 2003). 그러나 무관심성은 상호주관적 타당성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상호주관적 타당성은 자유롭고 확장 가능한 타당성, 즉 나와 너의 유동적인 만남을 통해 의미를 확장해가는 것을 말한다(Nam, 2012). 그러므로 무관심성은 미적 판단의 독자성으로 사태의 판단의 장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공적인 공감의 지평으로서 토대가 된다(Ha, 2011). 따라서 무관심성은 대상에 대해서 의욕으로 비롯되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혹은 지닐 수 있는 의욕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권도 시범에서 미적 쾌는 무관심성에서 비롯된다. 시범의 미적인 쾌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길 한 쪽에 피어 있

는 꽃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태권도 시범은 도덕적 관심에 상관없이 그냥 보면서 즐거운 것이다. 반성적 판단력의 무관심성은 사회적 관심이나 도덕적 관심과는 관련은 없지만 어느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심은 갖고 있다. 이것이 무관심한 관심이라는 것이다. 의욕에서 비롯된 전적인 관심은 아닌 것이다.

태권도 시범은 관전자가 갖는 소통의 이해관계로서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보편적인 소통의 장으로서 실현되기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상호주관적 타당성이 전제되어 하나의 개념을 드러내어야 한다. 이는 한 사람의 관전자로서 주체의 입장에서 하나의 주제를 형성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타인과의 연결되는 보편적인 의미로서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태권도 시범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무관심성은 관전자 주관적인 느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전자의 보편적인 공감으로 관전자 개인에 표현의 자유를 공유하려는 합목적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시범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무관심성은 관전자에게서 표현의 자유와 관계하는 것이다.

태권도 시범에서 관전자 개인의 주관적인 표현의 자유는 그가 의미를 두고 있는 세계와 연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행위는 그 세계와 관계하여 상호주관적인 의미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Ha, 2006). 예를 들어 태권도 시범의 회전차여 차는 기술, 즉 540도 돌개차기에서 720도 나아가 1080도 돌개차기 등의 고난도 발차기 기술에서 시범자의 의도로 보면 ‘발차기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인간이 도전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의미는 관전자가 보고 부여하는 표현의 자유이지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태권도 시범 기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관전자로서 의욕적 관심과는 무관하며 시범자의 회전차기 자체가 주는 메시지로써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과 어우러져 관전자

에게 보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로서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범의 목적을 의식한 관심은 자칫 시범에 대한 본질을 흐트릴 수 있다. 무관심성이 결여된 표현의 자유는 시범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범에 대한 의미는 무관심성으로 시범을 보고 의식의 자유로운 표현이 시범의 본질적 의미로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주체는 각 개인이며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럼에도 이를 보는 관전자가 모두 보편적인 인식으로서 메시지를 전달받아야 한다.

칸트는 주관성이 지니는 보편성의 고비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전환으로 보편성 그 자체로 보았다(Nam, 2012). 태권도 시범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관전자의 주관적인 지각에 의해서이다. 그래서 그의 주관이 다른 사람에게도 타당하다면 이에 대한 근거는 물론 시범이지만 시범을 보는 관전자의 무관심성적 자유로운 표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보편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많은 관전자가 보는 시범에 대한 지각적 작용이 한 사람의 관전자에게 같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시범에 대한 무관심성은 관전자 개인의 주관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보편적인 의미이자 메시지 전달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내재할 것이다.

시범에 대한 표현은 한 명의 관전자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타인, 즉 다른 관전자와의 공감에 존재해야 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렇듯 시범에 대한 공감은 각자의 주관적 표현의 자유로움으로서 메시지이며 시범의 행위에 대한 반성적 판단력의 작동으로서 그들의 합목적적 의미를 구해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시범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무관심성은 주관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오직 관전자 개인의 자율성을 요구한다. 시범은 그 자체로만 이미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사태 그 자체로만 발생하는 보편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다른 관전자들에 의한 주관적 느낌, 즉 자유로운 표현이 그들 스스로의 판단력에 따라 새로운 메시지를 부여함을 의미한다.

다음은 시범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것이 공통감이다. 공통감이란 무엇이 만족과 불만족을 주는지에 대한 것은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감정에 의해서 규정하면서도 보편타당하게 규정하는 주관적 원리(Kant, 1974)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며 취미의 선험적인 원리가 공통감이다. 표상의 보편적 전달 가능성, 그것의 객관성, 선험적 원리 안에 있는 그것의 토대는 서로 관

련을 맺고 있다(Kim, 2003).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성능력처럼 일반적인 능력이다. 하지만 감각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지각으로서의 능력이다(Nam, 2012).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판단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서로 맞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Kant, 1974). 이와 같이 공통감은 시범에서 관전자가 느끼는 표상의 원리가 되며 이러한 점은 시범에서 어느 누구나 관전자의 관점에서 교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느낌으로 스토리를 전달받는 것이다.

칸트가 전하고자 하는 공통감과 무관심성은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는 판단이거나 오직 순수 형식적인 미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념의 객관적 실재성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밖의 다른 것의 사적인 관심에 대해 방해받지 않고 파악함인 것이다(Yeon, 2015). 시범에서 관전자는 다른 관전자와 느낌을 공감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관전자와 교류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이 공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에 토대가 되는 것으로 상호주관적이면서 보편적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즉 합목적적이게 하는 것이 공통감인 것이다. 이렇듯 공통감은 지금 필요한 관전자에게 본질적 원리에서 보편적인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성적 판단력의 특성이다. 감정을 지닌 공통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식한 것이 보편적으로 전달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통감에 근거하여 감정을 보편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다(Kim, 2006).

관전자가 태권도 시범을 보고 '멋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정은 누구나 공통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시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권체조나 호신술 그리고 고난도 기술 퍼포먼스 등에서 음악과 같이 진행된다. 음악은 어떠한 상황에서 기술의 표현과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는 관전자에게 매우 흡족한 감정으로 규정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범자가 시범을 펼치고 있고 관전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멋있다,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감정은 관전자 외에 다른 관전자 역시 그 느낌에 대해서 공감의 동의를 표하고 있음이다(Kwon & Bing, 2020a). 시범에 대한 미적 판단은 시범을 보는 관전자의 보편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이때 관전자들이 느끼는 것이 공통감인 것이다. 즉 그들만이 지니는 소통으로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통감은

시범이라는 대상에서 판단하는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자기명령의 형태로서 행위에 대한 판단인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시범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공통감은 관전자들이 갖는 공감과 보편성과 타당성으로 시범을 보는 모든 이에게 보편적인 메시지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반성적 판단력이 고정되어 있는 원리로서 보편적이지 않은 것은 태권도 시범에서 느낌을 갖고서 메시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권도 시범에서 상호주관성, 즉 주관적인 교류가 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 틀에 맞추어 구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관전자가 시범을 통해서 그 자신의 느낌을 유추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범의 내용이 획일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느낌은 무조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관전자의 측면에서 각자가 다른 느낌의 메시지로 형성시킬 수 있다. 즉 반성적 판단력의 과정을 통해서 관전자가 갖는 느낌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들의 감정은 더욱 더 풍부해진다고 할 수 있다. 관전자와 다른 관전자와의 보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이들이 서로 소통(전달)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자유로운 표현은 스토리텔링을 구성한다. 이는 시범에서 관전자가 갖는 무관심성, 공통감이 갖는 보편성에 의한 것이다.

태권도 시범은 매순간마다 규정적이지 않아야 한다. 즉 시범의 새로움은 삶의 변화와 같은 것이며 그 새로움에서 보편적인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전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합목적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시범에서 합목적성은 이들의 관계에서 시범이 주는 느낌으로 포섭되어야 한다. 즉 시범에서 그들이 전달받고자 하는 즐거움의 메시지가 내포되어 자유로운 표현으로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전자는 반성적 판단력으로 대상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포섭할까? 이에 대한 상상력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일종의 자유로운 놀이, 즉 유희를 말한다. 이러한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는 정해지지 않은 개념이나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상상력이 그 개념이나 목적을 찾는 것을 의

미한다(Kim, 2005). 그러므로 태권도 시범이라는 대상에서 인식할 수 있는 유희는 이성을 통한 접근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 주체에 관계시킨다. 또한 주체가 느끼게 되는 쾌와 불쾌의 감정에 관계시킨다(Yeon, 2012).

칸트는 상상력을 중심으로 지각을 개조해 나간다. 주어진 개념에 포섭시킬 수 없는 대상을 만난 경우, 상상력은 기지의 보편에 포섭시킬 수 있도록 직관의 다양함을 종합한다(Kim, 2005).

따라서 태권도 시범에서 반성적 판단의 특성은 표현의 자유로움이 내재된 스토리텔링으로 관전자에게 어떠한 보편적 개념¹¹⁾으로 창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근거이며 자유로운 상상력의 유희는 이를 포섭시킨다.

2. 태권도 시범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비판: 커뮤니케이션의 창조

태권도 시범에 대한 표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개념이 없다. 그러나 관전자는 태권도 시범의 내용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포섭하고 싶어 한다. 태권도 시범의 표상에 개념을 붙이기 위해서는 관전자의 자유로운 유희로서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태권도 시범에 대한 관전자의 상상력은 태권도 시범에 대한 새로운 보편적 개념을 창출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반성적 판단력은 이에 대한 비판적 근거가 된다. 미의 보편타당한 판정이 지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에 의한 미적 합목적성의 판정으로서 밝혀(이신철 역, 2009)지기 때문이다.

칸트가 말하는 상상력이란 어떤 대상을 파악하면서 생각을 하는 자유로운 놀이, 즉 유희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시범에 대한 상상력의 유희는 그들만의 놀이를 즐기는 것이다. 시범에서 반성적 판단력으로 인한 특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개념이 존재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는 관전자가 추구하는 합목적성의 결과인 것이다. 이를 개념화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창조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창조는 시범의 행위자와 관전자 사이에 보편적인 메시지, 즉 스토리텔링을 자유로운 상상력의 유희로서 그들에게 전달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1)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하여서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 언어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판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나 판단을 성립시키기도 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

보면 태권도 시범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근엄하고 웅장하게 구성했다고 하면 이를 보는 관전자의 커뮤니케이션 창조로서 송고¹²⁾하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창조가 토대로서 작용한 것이다. 반성적 판단력의 특성인 무관심성과 공통감으로 비롯된 상상력의 유희는 자유로운 표현으로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며 커뮤니케이션 창조라는 송고한 개념으로서 존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관전자는 태권도 시범을 통해서 큰 감흥을 받는다는 것인데 칸트는 단적으로 큰 것을 송고하다고 표현한다. 이를 인간의 이성적 사명에 견주어 본다면 합목적적이기 때문에 감정은 꽤로 전환되고 이로부터 송고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Kim, 2005). 예를 들어 온 세상을 뒤덮고 집어삼킬 듯한 폭풍우 속의 파도가 이는 바다를 보면 세상에 더 없는 송고를 경험할 수 있다. 태권도 시범 역시 휘몰아치는 기술적 기교와 향연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 또한 태권도 기술과 결합된 특수동작, 회전발차기, 아크로바틱과 결합한 발차기 등은 충분히 송고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때 관전자가 받는 꽤의 감정으로서 송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송고함이 커뮤니케이션의 창조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주체들 사이에서 갖는 의미를 공유해 나가는 과정(process)으로서 동의한다(Nam, 2012). 인간이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서로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의미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나 사물에 대하여 절대적이고 진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해내어 그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과정을 찾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은 시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중요하다. 특히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태권도 시범에 대한 본질적 의미는 시범에 포함된 의미를 전달하려는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시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범을 통해 태권도 속에도 어떠한 장르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관전자들이 느끼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범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창조이다. 이는 시범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아가 자유로이 펼칠 수 있는 상상력의 즐거움, 즉 유희를 통해서 형성되며 현 사태로서의 시범의 의미를 다른 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범의 그 기술적 난이도는 보편적일 수 있지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창조는 시범이 갖는 보편적인 원리의 틀을 변형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시키는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태권도 시범에서 관전자가 보는 주관적인 관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보편적인 전달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답인 것이다. 즉 태권도 시범에서 본질적 의미에 대한 비판의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시범의 보편적 의미에 대한 비판은 커뮤니케이션 창조라는 개념으로서 창출되는 것이다. 이것이 관전자들에게 보편적 존재의 토대로서 마련되는 것이다. 이때 태권도 시범은 더 나은 시범문화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태권도 시범은 그 하나의 현상으로 태권도가 어떤 것이며 기술의 세계 및 정신력의 한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태권도 시범이 지녀야 할 본질적인 의미와 그것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은 궁금증은 태권도 시범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되며 시범이 갖는 본질적 의미에 대한 개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태권도 시범이 가진 실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태권도 시범에 대한 표상을 낳을 수 있기에 그것이 주는 새로운 의미로서 개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사유의 체계를 공유할 수 있게 하므로 관전자라는 공동체에 새로운 표상작용의 방식이 되기도 한다. 즉 태권도 시범은 그 내용의 본질적 의미로서 보편적인 전달이 가능한가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시범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비판으로서 존재적 토대를 마련해 태권도 시범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관전자가 시범을 지각하게 되므로 그것이 지니는 본질적 의미로부터 개념의 발굴은 그 학적 토대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설정하게 한다. 이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의한

12) 어떤 것을 오직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감각의 모든 척도를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증거가 됨을 말한다(Kant, 1974). 그러므로 송고란 감각의 모든 척도에서 벗어나 그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감지하게 되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언명인 것이다(Kim, S. 2006).

반성력 판단력에 근거하였다. 시범이 ‘멋있다, 아름답다’는 미적 판단에서 본질적 의미는 상호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관계는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의 특성으로 가능하다.

먼저 시범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의 전제로서 무관심성이다. 태권도 시범에 대한 무관심성은 관전자 개인의 주관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공감의 메시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사태 그 자체로 파생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다른 관전자들에 의한 자유로운 표현이 다르지만 새로운 메시지로 부여된다. 다음으로 시범의 보편적인 개념에는 공통감이 필요하다. 공통감은 관전자가 느끼게 되는 메시지로 교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는 대상에서 판단하는 주체로서 자기 스스로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의 형태로서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태권도 시범에서 공통감은 관전자들이 지닌 보편성과 타당성의 공감으로 이를 보는 모든 이에게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합리적인 토대를 구축한다.

그러므로 무관심성과 공통감은 시범에 대한 전달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로서의 작용이다. 나아가 관전자에게 어떠한 보편적 개념으로 창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근거이다. 이에 대해 자유로운 상상력의 유희는 태권도 시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포섭하고 숭고함을 지니게 한다. 이를 개념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창조이다. 따라서 태권도 시범에서 본질적 의미에 대한 비판은 커뮤니케이션 창조라는 개념으로서 창출되는 과정을 논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존재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태권도 시범은 단순히 태권도 기술의 전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시범문화의 존재적 토대로서 마련되어 태권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분위기로 변화·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과제로서는 시범이 지닌 본질적 개념에 대한 구조로서 구성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1). 비판의 정의. 2020년 11월 3일 발췌, <https://stdict.korean.go.kr/>
- 백종현 역(2009). 판단력 비판. I. Kant(1900)의 Kritik der Urteilskraft, Seoul: 아카넷.
- 오석철, 이신철 역(2011). 맑스사전. Seoul: 도서출판b.
- 이신철 역(2009). 칸트사전. Japanese 弘文堂(1997)의 Kant Dictionary. Seoul: 도서출판b.
- 이신철 역(2011). 현상학사전. Japanese 弘文堂(1994)의 Pheno-

- menological dictionary. Seoul: 도서출판b.
- Cassirer, H. W. (1938).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Judgement*. London: Methuen.
- Chu, G. S. (2018). Kant's Kritik der Urteilskraft of Aesthetics.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82, 1-34.
- Ha, S. K. (2006). Freiheit der Natur und Einbildungskraft: Versuch ber die Aktualitt der reflektierenden Urteilskraft Kants(II).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Science of Art*, 24, 5-47.
- Han, J. K. (2006). *Invitation to Kant's Philosophy*. Seoul: Seogwang Inc.
- Hwang, J. S. (2020). *A Study on How to develop Concept Constructing Ability in Social Studies using Kant's Reflective Judg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Im, I. H. (2019). The extrinsic value of the aesthetics of taekwondo demonstration. *The World Society of Taekwondo Culture*, 10(3), 15-23.
- Im, I. H., & Kim, J. H. (2011). An Investigation of Possibilities on Taekwondo's aesthetic.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13(2), 27-38.
- Jang, D. E., & An, Y. K. (2017). Aesthetical Exploration on Acrobatic Techniques in Taekwondo Demonstr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Studies*, 56(1), 25-42.
- Jeong chi hag dae sa jeon pyeon chan wi won hoe.(2002). *21st Century Political Abuse Dictionary*. Seoul: Academy Research Inc.
- Kant, I. (1971).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Felix Meiner.
- Kant, I. (1974). *kritik der Urteilskraft*. Hamburg: Felix Meiner.
- Kim, H. B. (2006). Aesthetics of the Seeing-in the Phenomenological Reflection to the Seeing.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89, 37-67.
- Kim, J. H. (2009). A Phenomenological Approach on the Experience of Taekwondo Demonstration Activity.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17(1), 115-127.
- Kim, K. M. (2003). Problems of Kant's Philosophy: The Meaning of Judgment and Judgment-Focused on Kant's Criticism of Judgment Power. *Kant-Studien*, 12, 83-107.
- Kim, K. M. (2006). *Kant's critique of judgment*. Seoul: cheolhaggwa hyeonsilsa Inc.
- Kim, S. H. (2005). *Kant The Criticism of Judgment Philosophical Thought Vol. 5, No. 6*. Seoul: Gwan-ag Inc.
- Kim, S. H.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and imagination in Kant aesthetics. *Kant-Studien*, 17, 1-26.
- Kim, Y. J. (1996). *Nature and freedom*. Seoul: Seogwang Inc.
- Kim, Y. R. (2009). Erfahrungsmöglichkeit und Funktion der Einbildungskraft bei Kant. *PAN-KOREAN PHILOSOPHY*, 55(4), 229-254.

- Kwon, H. J. (2014). *A Study on the Thought of Korean Taekwondo*.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 Kwon, H. J., & Bing, W. C. (2020a). A Structure of Aesthetic Experience in Taekwondo Revolution Kick Spectator.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8(1), 727-736.
- Kwon, H. J., & Bing, W. C. (2020b). Approaching the meaning of mood as emotion in Taekwondo demonstration: Focusing on Husserl's Phenomenology. *Journal of the World Society of Taekwondo Culture*, 11(4), 63-78.
- Kwon, H. J., & Bing, W. C. (2020c). Essential Structure of Feeling in Taekwondo Demonstration -Focusing on Hermeneutic Phenomenology-. *Korea Society for Wellness*, 15(4), 323-335.
- Nam, G. H. (2012). Reflective Study of Primary Implications of Communication with Reference to Kant's Critic of Judgement.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6(6), 391-414.
- Oh, B. N. (2010). *Aesthetics Lectur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Center.
- Park, Y. U. (2005). *Epistemological Approach to Media: McLuhan's Classification of Media and Kant's Two Judgments*. Journal of Media Philosophy (Edition) Understanding Media Philosophy. Seoul: Ingan Salang Inc.
- Song, K. H. (1999). A Study on Kant's Critique of Judgement- A Study on Aesthetics.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Humanities* 8(2), 79-135.
- Yang, H. J. (2010). Warum soll der Urteilskraft auf die schöne Kunst angewandt werden? - Durch die zweite Einleitung der Kritik der Urteilskraft Kants-. *Hegel-Studien*, 28, 251-283.
- Yeon, H. W. (2015). A Study on the Male-centeredness of Visual-centricism: Focus on the theme of Uninterestedness Aesthetic. *Korean Feminist Philosophy*, 23, 119-146.
- You, Y. S. (2019). *A Study on Kant's Concept of Reflective Judgment-Focu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regulation and reflec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Criticism of the essential meaning of Taekwondo demonstration : Focusing on Kant's reflective judgment

Kwon, Hyeok-Jeong¹ · Bing, Won-Chul^{2*}

1, Dong-A University, Doctor 2, Baeseok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Taekwondo demonstration culture by establishing an existential foundation as a critique of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Taekwondo demonstration.

Method This study discussed based on Kant's reflective judgment. His reflective judgment showed the possibility of being an existential foundation as an essential meaning of what points and relations were made in the demonstration.

Results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aesthetic judgment that the Taekwondo demonstration is “cool, beautiful” is intersubjective, and certain concepts can be created. This is possible through the disinterestedness and common sense,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reflective judgment. The disinterestedness to the Taekwondo demonstration is the freedom of subjective expression of the individual spectators, which is given in various meanings with new possibilities. In the Taekwondo demonstration, the common sense is the sympathy of the universality and validity of the spectators, and establishes a reasonable foundation to deliver a universal message to all who see it. The act as judgments that can reflect on how the message to be delivered to the demonstration is constructed. The characteristic of reflective judgment is a critical basis for what kind of universal concept to be created for spectators. The conceptualization of this is the creation of communication, and it is a conceptual action that composes the universal message of the demonstrator and the spectator through storytelling and delivering it to the spectators as a play of free imagination.

Conclusion Therefore, the critique of the essential meaning in the Taekwondo demonstration was to demonstrate the process of creation as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creation and to lay the existential foundation for it.

Keywords Disinterestedness, Common sense, Freedom of expression, Storytelling, Communication creation

논문투고일: 2021.02.03.

논문심사일: 2021.03.11.

심사완료일: 2021.03.28.